

# 광주 구청장 공천경쟁 '점화'... 남구 '단일대오' 변수

## 6·3 지방선거 이슈

### 5개 구 대진표 완성...엇갈린 경선 방식 속 판세 요동 내일 후보자 등록...3일간 선거운동 후 24일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서구청장 경선 후보와 방식을 확정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의 경선 구도가 모두 확정됐다. 각 구별로 상이한 경선 방식이 적용되는 가운데, 남구에서는 예비후보 간 단일화 합의가 공식화되며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당은 17일 서구청장 경선 후보를 김영남·김이강·조승환 3명으로 확정하고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로써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의 전체 대진표가 완성됐다. 동구는 노희용·진선거·임택 3자 구도, 서구는 김영남·김이강·조승환 3파전, 남구는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5파전, 북구는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정달성·조호권 7파전, 광산구는 박병규·박수기·차승제 3자 대결로 치러진다.

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이후 24일부터 본격적인 투표 절차에 들어간다.

경선 방식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구와 북구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경선을 먼저 치른다. 남구는 5명 가운데 2명을 압축해 국민참여 방식 결선으로 이어가고, 북구는 7명 중 5명을 선발해 본경선을 실시한 뒤 결선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동구·서구·광산구는 예비경선 없이 권리당원 ARS 투표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결합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가린다.

### 더민주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대진표

지역	후보	후보자
동구	3명	노희용·진선거·임택
서구	3명	김영남·김이강·조승환
남구	5명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북구	7명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정달성·조호권
광산구	3명	박병규·박수기·차승제

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남구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연설회 이후 진행되는 예비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최다 득표자를 중심으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남구는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동시에 요구받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을 펼치되 결과 이후에는 분열 없이 하나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을 '갈등'이 아닌 '조직 결집 과정'으로 규정하며 본선 경쟁력



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예비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과정에서 결선에 진출한 후보로 '원팀'을 이루는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확보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처럼 광주시당이 경선 대진표와 일정을 모두 확정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남구에서 형성된 '원팀' 합의가 실제 표결로

로 이어질 경우, 다자 구도 속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방식이 구별로 다른 만큼 조직력과 결집력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구의 단일화 움직임은 단순한 선연을 넘어 실제 표이동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강기정 "특별시민수당 도입...기본사회 실현"

### 1호 공약 발표...시 수익 활용 청년·소상공인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이 1호 공약으로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예술인 등을 위한 '특별시민수당'을 내놨다. 강 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특별시장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시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민수당은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에 대한 기본사회 소득으로, 특별법 제317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

을 위한 제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과 보훈 등 주요 수당과 복지·보육·요양에의 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도 사용된다. 강 시장은 이 제도의 운영 재원을 햇빛, 산, 바다 등의 지역의 자산과 AI, 데이터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청년기본수당은 청년기본수당은 광주·전남 약 60만명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강 시장

의 생각이다. 소상공인 매출안정 수당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광주·전남 30만 소상공인에게 단계적으로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기본수당과 같이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농민수당 기존 통일과 함께 농촌기본소득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1만여 예술인에게 연 3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원,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시민의 삶의 수준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시민 권리와 관련된 주요 수당을 서울

## 정인화 "특별시민수당 도입...기본사회 실현"

###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7일 광양시장 열린홍보방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광양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이 전환기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기회로 만들어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재선 도전을 위해 지난 민선 8기 4년 성과를 언급하고 "광양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6조9000억원의 투자유치와 이차전지 기회발 전특구 지정, 수소 도시 추진 등을 통해 산업도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최초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한 복지를 실현했다"

##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 "역사적 전환기...광양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7일 광양시장 열린홍보방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광양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이 전환기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기회로 만들어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재선 도전을 위해 지난 민선 8기 4년 성과를 언급하고 "광양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6조9000억원의 투자유치와 이차전지 기회발 전특구 지정, 수소 도시 추진 등을 통해 산업도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최초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한 복지를 실현했다"

##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 "역사적 전환기...광양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7일 광양시장 열린홍보방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광양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이 전환기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기회로 만들어 '광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재선 도전을 위해 지난 민선 8기 4년 성과를 언급하고 "광양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6조9000억원의 투자유치와 이차전지 기회발 전특구 지정, 수소 도시 추진 등을 통해 산업도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최초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한 복지를 실현했다"

## "마을단위 배당...농어촌 월급경제 도입"

### 민형배, 4대 마을 경제축 제시...주민 소득구조 전환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민형배 국회의원(사진)이 농어촌 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마을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지역 자산 기반 경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민 의원은 17일 정책 발표를 통해 "농어촌이 더 이상 소득 취약 지역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마을 단위 사업과 배당 구조를 결합한 '마을월급 경제'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한 4대 마을 경제 축이다.

관광·정원수·농수산·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숙박·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발생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관광 수입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원 산업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공공사업 연계로 통해 '정원수 소득마

을'로 육성한다. 실제 신안 지역 사례를 근거로 수익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농수산 분야는 생산·연구·유통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통합 브랜드와 수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햇빛과 바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소득마을' 모델을 도입한다.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고, 탄소 크레딧 등과 연계해 환경과 소득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청년 유입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마을 사업 운영을 맡는 '마을 경영인' 개념을 도입하고,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등을 통해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배당형 경제 모델을 통해 농어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마을이 사업을 하고 주민이 월급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통합시장경선 토론회방식 재검토해야"

### 신정훈·정준호 "6명 참여 토론회...정책별 2차례 이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정준호 의원은 16일 경선 토론회 운영 방식 재검토를 당에 요청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통해 "6명의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토론회를 열거나, 후보를 3명씩 재구성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최소 두 차례 이상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이들은 앞서 이계호 의원에 이어 이병준 당 후보발 전특구 수석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경선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제명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이라며 "그만큼 경선 과정 역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회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정된 토론회는 B조 후보 2명의 사퇴로 인해, 사실상 2명만 참여하는 불균형한 방식으로 진행될 상황"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후보 간 정책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어렵고, 무엇보다 시도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진행되

## 신정훈·정준호 "6명 참여 토론회...정책별 2차례 이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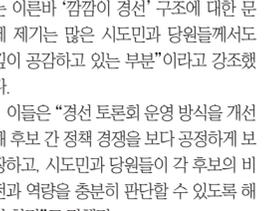
### 신정훈·정준호 "6명 참여 토론회...정책별 2차례 이상 필요"

신정훈·정준호 의원은 16일 경선 토론회 운영 방식 재검토를 당에 요청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통해 "6명의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토론회를 열거나, 후보를 3명씩 재구성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최소 두 차례 이상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이들은 앞서 이계호 의원에 이어 이병준 당 후보발 전특구 수석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경선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제명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이라며 "그만큼 경선 과정 역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회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정된 토론회는 B조 후보 2명의 사퇴로 인해, 사실상 2명만 참여하는 불균형한 방식으로 진행될 상황"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후보 간 정책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어렵고, 무엇보다 시도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진행되



신정훈



정준호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담양의 미래 100년 책임지겠다"

### 박종원 도의원, 담양군수 출마 공식 선언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17일 6·3 지방선거 담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출범과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담양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담양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준비된 후보로서 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원 8년과 도의원 8년의 의정 경험을 강조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됐고, 군정과 도정을 두루 경험한 정치적 식견과 실행력을 갖췄다"며 "지금 담양에 필요한 것은 준비된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철원 군수가 조국혁신당 소속인 점을 겨냥해 "집권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와의 정책·예산 연계를 통해 담양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힘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균형 운



박종원

영을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비전으로 '담양수도 성장 8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핵심은 광주와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 구조 전환이다. 이를 통해 △군 예산 1조원 △정주 인구 7만명 △생활 인구 100만명·관광객 1500만명 △광주와 동일 생활권 형성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AI 스마트농업 실증도시 조성 △농업·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융복합 밸리 유치 △기본생활소득제 도입 △공공의료·돌봄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의원은 "담양을 AI 농업 1번지이자 생태·인본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